

“작은 정성 모아 큰 이웃사랑”

불교계 각 복지단체·기관 등 다양한 소액기부 프로그램 마련

“저는 돈이 없어서 기부는 꿈도 못 꿩요.”

“적은 금액이나마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날이 추워지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매제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는 마음이 아프다가도 ‘기부’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어려운 일인 줄 알고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기부는 어렵지 않다. 적은 금액이라고 장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기부의 출발점이다. 다만, 기부를 하기 위한 통로를 찾는 수고는 해야 한다.

소액기부로 작은 것을 나누는 마음을 공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중)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설립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에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은 첫 등장때부터 소액기부 붐을 일으켰고 현재는 ‘1%나눔’ 운동을 통해 기부문화 대중화 힘쓰고 있다.

복지들이라면 불교계 복지·교육 기관들의 기부 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이 갈 것이다. 특히 각 종단 사회복지재단에서 소액기부자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997년부터 ‘결연후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매달 단체 및 개인 결연후원자 1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저소득층 청소년·독거노인·심신

장애인·모자가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등에 5~10만원씩 전달하는 사업이다. 가장 적은 2천원부터 기부가 가능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복지사업부장은 “후원금 2천원이 적은 금액 같지만 그 돈이 모이면 크게 변할 수 있다”며 “복지들이 결연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후원금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참여를 호소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세어릴(share

will)’이라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이는 급전적 후원이 아니라 ‘정신적 후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직업의 의미나 경험, 정보 등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태종복지재단에는 결식아동 3:1 릴레이 후원 프로그램인 ‘만만(滿)후원단’이 결성돼 있다. ‘따뜻한 마음이 끝내 빛난다’는 뜻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천태종 사찰 신도

3~4명이 일정금액을 모아 저소득가정 학생 점심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후원단은 2004년부터 태백산 광촌의 태서초등학교를 위시해 춘천 대구 포항 등의 학교 12곳 95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왜지재단 2007년에는 종단 사찰 산하 유치원, 어린이집, 사찰 등 100여 군데에 왜지저금통을 배포, ‘복돼지 키우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소액기부운동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2007 행복나눔 김장행사’ 개최

소외된 이웃에게 김치를 나눠주기 위한 ‘2007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해 성공회주교 대주교 김재환 신부, 대한승려회 관구장 박경조 주교, SK텔레콤 김신애 사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임영규 목사,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왼쪽부터)이 김장김치를 직접 담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계절이 돌아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임종인 11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SK텔레콤, 먹거리나눔기운동연합회와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김치를 나눠주기 위한 ‘2007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해 성공회주교 대주교 김재환 신부, 대한승려회 관구장 박경조 주교, SK텔레콤 김신애 사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임영규 목사,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왼쪽부터)이 김장김치를 직접 담고 있다.

표 제도 도입 등 종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한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종회개정이 정족수 미달로 이월됐고, 10여개에 달하는 종법 개정안 역시 분과위 계류 및 심사보류를 이유로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한편, 175회 중앙종회는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회의원 연수를 진행했다. 여수령 기자

고품질 정수 발효식품 100% 천연
❖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물이 오르지 않고 참 숲의 약성을 섭취하는
❖ 산사 참 울 조청
 1.2Kg - 현 시세
❖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들에게 위한 정수 산사조청
 주문서 054-372-3166
 입금계좌 : 통장 727077-52-056761(예금주:한승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전 화 1 031)387-5400 팩 스 031)387-5409
 휴대 1 010-7504-4521 (간영희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동동 1597 한양빌딩 206호(은행동 도로 5층)

조계종 내년 예산 189억5천만원

급년 대비 3.3% 증가

조계종 제175회 중앙종회의장 지관이 조계종 내년도 예산안 189억 5000만원을 확정하고 산중총회법·호계원법 등 법안을 개정한 후 11월 6일 폐회했다.

11월 1일 개최해 5일 속개한 중앙

종회는 중앙종무기관이 제출한 불기 255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89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7억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것으로, 2년째 동결됐던 중무원 인건비가 3% 인상됐다.

조계종은 내년도 7대 전략과제를 △중앙조직사업 △대중원용살림회 △전법과 복지진흥 △수행종풍의 사회화 △한국불교 세계화 △남북불교협력사업 △한국불교종흥인프라 구축으로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한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 ‘호계원법’ 개정안, 전자투

표 제도 도입 등 종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한 ‘중앙종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종회개정이 정족수 미달로 이월됐고, 10여개에 달하는 종법 개정안 역시 분과위 계류 및 심사보류를 이유로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한편, 175회 중앙종회는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회의원 연수를 진행했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는 절 기원사 산사음악회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 기원사와 함께 하는 노래가 있는 저녁

기원사의 30년 역사는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주민들이 함께 일궈 온 따뜻하고 보람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노고와 다가올 시간의 희망을 함께 가꾸어 보는 노래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 멋있는 시간에 정다운 박은 부부의 화음이 함께 할 것이니 우리 동네는 하루저녁 극락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이 기쁜 자리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원장 지연 합창

2007 우리동네 어울음악회
 일 시 | 2007년 11월 17일(토) 오후 5시 기원사 강내
 식 순 | 1. 개회-사회: 김병조 2. 큰스님 축사 3. 공연
 출연진소개 | 사회: 김병조
 • 정태춘 박은옥
 • 조석호(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
 • 안희진(경기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제31호 이수자)
 • 크레이션 • 파파스(40대 동방신기) • 기원사 합창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TEL 02)918-0034
 ◆ 주최: 기원사 ◆ 주관: 기원사 신도회 부부법회
 ◆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불교TV·현대불교신문·불교신문·법보신문

※ 유진박의 공연은 일정상 취소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